

개화기의 한국 어문운동*

- 국한문혼용론과 한글전용론을 중심으로 -

고영근**

1. 들어가기

한국의 근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필자는 임진왜란 이후 서서히 불어닥친 서양세력의 동방진출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근대화의 기틀이 다져져 온 것으로 보고자 한다. 한국 근대화가 가져다 준 문화적 변혁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한글에 대한 재인식과 그 公用化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19세기 말의 갑오경장부터 1910년의 일본의 한국주권 침탈까지를 일단 개화기로 간주하고 이 시기의 한국어문운동의 한 면모를 밝혀 보고자 한다.

개화기의 한국 어문운동의 주제에는 한글전용을 둘러싼 찬반양론, 문자 및 철자법의 개혁,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 규범문법과 사전의 편찬 등 많은 과제를 들 수 있으나 이곳에서는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에 관련된 하나의 주제에 국한하여 개화기의 한국어문운동의 성격을 밝히고 이를 현재의 어문 문제와 관련시켜 앞으로 한국어문이 걸어나가야 할 방향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 이 글은 제6회 韋菴 張志淵 기념학술세미나(2000.11.1,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원고를 보강한 것이다. 이 글을 준비함에 있어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협조하여 준 강혜선 교수(성신여대)와 채숙희 양(서울대 대학원)에게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 본과 교수

2. 한국어문운동의 시대적 특수성과 철학적 기반

한글이 15세기에 창제되었지만 공용문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공용문자는 여전히 한자·한문이었다. 한글은 불교나 유교의 경전을 번역하는데 이용되는 언해문이 고작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한자를 앞세운 일종의 국한문혼용체였다, 그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 한글은 그 사용기반을 넓혀 나갔다. 182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양인들은 한국 접근의 수단으로 한국의 어휘를 수집하였고 183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한국어문의 제반 사항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독일인 지볼트(Fr. von Siebold)가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제반 사정을 분석한 『일본』(1832~1851)을 저술하면서부터 한국어 서방세계에 자세히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지볼트는 네덜란드 정부의 동인도 회사 파견원으로 7년 동안 일본에 근거를 두고 서양의술을 보급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극동 지역의 인문과 자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네덜란드에 돌아가 20년에 걸쳐 위의 책을 편찬하였다. 이 책의 제7장에 한국기술이 배당되어 있다. 이곳에는 한국의 언어·문자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총체적 기술을 담고 있다. 지볼트는 1828년 나가사키에 난파해 있던 전라도 출신의 상인·어부들을 만나 한국어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어 문법을 처음으로 구성하였고, 『千字文』, 『類合』 등의 한중 어휘집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서양인들의 한국이해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 책의 한국기술은 이내 러시아어로 번역되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 여러 나라의 한국이해의 중요한 문헌이 되었다.¹⁾

한국어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프랑스 선교사들로부터 비롯된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840년대 중반이었다. 한국 안에 선교의 근거를 마련한 프랑스 선교사들은 한국어문 연구에 손을 대어 원고가 불타는 수난을 겪으면서도 1880년대 초에는 완성된 사전과 문법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나중에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의 선교사와 외교관들에게 영향을 미쳐 외국인의 한국어 연구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간접적으로는 한국인들의 민족어 연구에도 큰 자극제가 되었다.²⁾ 특히 1880년대에

1) 지볼트의 한국기록에 얽힌 제반 문제는 고영근(1989/1998 : 278~346)을 보라.

들어오면서 서양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이들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자를 그 나름대로 정리하여 문법을 저술하고 사전을 편찬하는 일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서양인들이 선교나 외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의 어문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한국 안에서는 갑오경장이란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 중국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았으며 이와 함께 창제후 한자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한글이 제 위상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고종은 1894년 11월에 내린 칙령에서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으로 본을 삼되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한문을 섞어 쓸 수도 있다(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9(현대역)

이라 말하였고 이듬해 5월에 칙령을 개정할 때에는

法律勅令은 다國文으로本을삼고漢譯을附히며或國漢文을混用함(현대역 : 법률칙령은 다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한문을 섞어 씀)

와 같이 법령 자체를 국한문으로 공포하여 국한문혼용의 전범을 보이었다. 고종의 두 번째 칙령에 의하여 한글이 비로소 한국사회의 공용문자의 구실을 할 수 있었다.³⁾ 한글은 창제 이래 “언문(諺文)”이란 영예롭지 못한 이름으로 불려 왔는데 “국문(國文)”이란 이름을 붙임으로써 “어리석은 백성”에 국한되었던 한글의 사용범위가 전 인민으로 확대되었다.

“국문”을 본으로 삼는 대한제국시대의 언어정책적 기초는 어떠한 언어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

먼저 개화기에 처음으로 국문관계의 저술을 집필한 이봉운은 그의 『국문정리』(1897)에서 국문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독립권리와 자주사무에

2) 프랑스 선교사들의 한국어 연구의 제반 동향에 대하여는 고영근(1983 : 207~213, 244~252, 261~262)를 보라.

3) 이 방면의 자세한 정보는 신창순(원고본)에서 얻을 수 있다.

제일 긴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같은 해 같은 이름의 책을 낸 이규대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규대는 “글로도 남의 나라글에 종이 되지 않게 하여 나라 위하는 정신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내 나라를 생각하는 노래”를 지어 붙이기도 하였다. 갑오경장 직후의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결같이 한글을 제정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찬양하고 오래 동안 국문을 천시해 온 풍조를 비판하면서 모처럼 공용문자의 자격을 획득한 국문을 정리하고 이를 연구하는 것이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당시 한국에 발을 붙이기 시작하였던 외국인들로부터 자국 언어의 장단도 모른다고 비방하는 말을 듣고 의분을 느껴 한국어문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어문의 정리와 연구를 나라의 독립자존과 연결시키는 철학적 기초는 주시경, 이상재, 박태서로부터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다.⁴⁾

주시경은 『국어문법』(1910)에서

그러므로 구역은 독립의 “基”요, 인종은 독립의 “體”요, 언어는 독립의 “性”이다. 이성이 없으면 몸이 있어도 몸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터가 있어도 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성쇠도 언어의 성쇠에 달려 있고 국가의 존부도 언어의 존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현대역)

이라고 말하여 언어를 독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 곧 “性(성)”으로 표현하였다. 주시경은 『대한국어문법』(1906)에서는 말과 글을 사회형성의 “기관”이라고 하였는데 『국어문법』에 와서는 이를 “性”으로 달리 표현하였다. 이는 주시경의 사상체계의 변모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⁵⁾

이상과 같은 언어철학은 박태서의 『국어유지론』(1908)에서도 볼 수 있다.

-
- 4) 필자는 고영근(1990/1994 : 319~337)에서 개화기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공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언어철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본 일이 있다. 그리고 고영근(1999)에서는 고대와 중세의 언어철학의 특수성을 구명하고 개화기에 와서 그것이 어떻게 서양의 언어철학과 접합하여 한국의 언어철학이 성립되는가 하는 문제를 추적한 일이 있다.
- 5) 주시경은 원래 기독교 신자였으나 나중에 대종교로 개종을 하였다. 주시경의 언어철학의 변모는 이런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소종래(所從來)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박태서는 유럽학자들은 국가의 3대 요소를 토지, 인민, 법률이라고 하나, 자기는 국어·종교·역사를 덧붙여야 한다고 말하고 국어 유지의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배풀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 반드시 나라가 있고 이미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국어가 있다. 국어는 한 나라의 사상을 발표하고 국시(國是)를 연기(演起)케 하며 문장을 대표하여 인민을 교육하고 역사를 술전(述傳)하는 천연적으로 형체가 없는 운용기(運用器)다. 그러므로 완전히 독립된 국어가 없으면 인민도 가르치기가 어렵고 역사도 전하기가 어려우며 국시도 통일하기가 어렵다.

앞의 주시경과 같은 분명한 철학적 명제는 발견할 수 없지만 국어를 국가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국어를 국가와 관련시키는 철학적 명제는 최광옥의 『대한문전』(1908)의 서문을 쓴 이상재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태서 문명국이 각기 자국의 문장과 언어의 규범이 있어 국민으로 하여금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그 마음을 단합하게 한 것이 자못 까닭이 있는 것이다. 우리 한(韓) 민족의 마음이 단합할 수 없는 것은 미상불 문자와 언어가 궤범을 달리함에 연유한 것이다 (...중략...) 이로써 국민을 가르쳐 이끌면 언어나 문장이 갈라져 들이 되지 않게 되리니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 합쳐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함이 반드시 하루만에 될 것이다.

이상재는 한국 민족이 단합되지 않는 것은 문장과 언어의 궤범이 다른 데 그 까닭이 있다고 하면서 문법연구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하였다. 한 나라나 민족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요소에는 앞의 박태서의 말과 같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한국과 같이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에서는 언어가 그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철학적 명제가 결코 그르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갑오경장 이후의 한국의 지식인들이 품고 있었던 언어철학은 국어를 독립자존의 중요요소로 간주한 데 있다.⁶⁾ 이러한 언어철학적 기조를 흔히 어문민족주의라고 한다. 어문민족주의 철학을 가장 극명하게 체계화한

6)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고영근(1999)에서 편 바 있다.

사람은 주시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신채호 등에 의하여 주창된 역사 민족주의와 함께 개화기를 대표하는 양대 이념이었다.⁷⁾ 개화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문운동에 헌신하고 한국어문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몰두한 것은 어문민족주의의 철학이 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한국어문의 수호와 표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3.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에 얽힌 제문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갑오경장 이후의 공식적인 문체는 국한문혼용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식적 문건은 국한문혼용체로 일관하였다. 간혹 한문체를 고집하는 일도 없지 않았으나 대중들은 국한문혼용체를 선호하였다.⁸⁾ 유길준과 같은 사람은 국한문혼용체를 지향하면서도 한자를 혼독하는 새로운 문체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독립신문처럼 처음부터 한글전용의 기치를 내걸고 서민을 독자로 하는 새로운 문체를 개발하는 일도 있었다.

개화기의 한글전용운동은 유길준, 서재필, 윤치호, 박영효 등 미국과 일본 등의 해외 유학을 하고 돌아온 지식인들이 선도하였다. 서재필과 윤치호는 한글전용을 내걸었고 유길준과 박영효는 국한문혼용을 주장하였다.⁹⁾ 개화기에 한글전용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글사용의 역사적 기반과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글전용운동은 멀리는 여성들의 한글애호와 근대 이후의 한국의 고전작품의 한글화에 그 뿌리를 댈 수 있고, 가까이는 1886년에 창간된 漢城週報에 근거를 둘 수

7) 신용하(1976/1984)는 주시경의 사상체계를 “어문민족주의”, 신채호의 사상체계를 “역사민족주의”라고 규정한 바 있다.

8) 『황성신문』, 1899.7.18일자 “國文交用으로 分明한 文章을”이라는 기사에서 한문에도만 붙인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교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9) 개화기의 한국어문운동의 경위에 대하여는 김인선(1991)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있다. 한성주보는 한문, 국문체, 국한문혼용체의 세 문체를 시험한 일이 있다.¹⁰⁾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중엽 이후의 서양 선교사들의 성경번역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선교사들은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는 한글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나름의 철자법에 근거하여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¹¹⁾ 또 선교사와 외교관들이 한국문법서를 저술할 때에도 예문을 모두 한글로 제시하되 띄어쓰기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프랑스 선교사들의 『한불자전』(1880)과 『한국어문법』(1881)은 비록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대에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한글자체를 고안하여 오늘날 한국활자체의 원류를 이루기도 하였다.¹²⁾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은 이미 서양문물에 접한 서재필과 그의 제자였던 주시경의 합작품이라는 견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¹³⁾ 주시경은 이미 17세(1892) 되던 해부터 국어국문연구에 착안하였고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에는 배재학당 학생으로서 독립신문사의 교보원으로 일했던 만큼 어떻게 보면 독립신문의 기사가 대부분 주시경의 손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사실 독립신문의 기사들은 주시경의 문체로 보아도 좋을 것이 상당하다는 데서도 그런 추리가 잘못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⁴⁾ 주시경은 2차에 걸친 “국문론”(1897.4/9)을 통하여 한문의 폐해를 지적하였고, 국문을 배워 독립의 기둥으로 삼아야 하며, 옥편과 문법을 편찬하여 철자법을 통일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또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보다 좋다는 점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실증하였다. 지식영도 「국문론」(1896.12)을 통하여 국문천시의 관습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국문정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0) 이기분(1984)에서 이런 문체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11) 신창순(원고본)에서는 기독교가 한글전용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많은 자료를 통하여 실증하였다.

12) 유흥렬(1962)에서는 리델 등이 편찬·저술한 사전과 문법의 한글자체의 고안 및 보급에 관련된 자세한 사정을 다루었다.

13) 신용하(1976)에서 이런 문체가 설득력 있게 밝혀진 바 있다.

14) 앞으로 독립신문의 기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경의 집필로 보이는 기사를 가려내어 독립신문의 간행에서 주시경이 차지하였던 위치를 다시 한번 가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시경은 「必尙自國文言」(1907.4)을 통하여 자신의 철학적 기초를 다져 나갔으며, 「말」(1901.9), 「사람의 지혜와 권력」(1902.9),¹⁵⁾ 「국어와 국문의 필요」(1907.1)에서는 띄어쓰기를 하면서 한글전용의 글을 썼고, 「한나라말」(1910.6)에서는 문법용어를 고유어로 바꾸면서 한글전용의 전범(典範)을 보이었다. 이를테면 주시경은 자신이 이전부터 오던 子音과 母音을 “으뜸소리”, “붙음소리”로 바꾸었다. 사실 한글전용이란 원칙적으로 한자교육을 배제하기 때문에 한자어는 한국 고유의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 주시경의 국어 순화사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당시나 후세의 어문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 정신만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개화 이후 수많은 어려운 한자어가 추방되고 고유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뒤에는 주시경의 국어순화사상이 밑거름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해영은 「漢文字와 國文字의 損益如何」(1897.6~7)에서 문명의 선진이었던 아시아가 낙후된 것은 한자만 숭상하고 자국 국문을 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국문교육을 강화하여 국문보급에 매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독립신문』은 「타국 글 아니다」(1899.5.20)라는 논설을 통하여 정부의 국한혼용의 정책을 비판하는 논조를 펴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도 한글전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승만은 700여 편의 국문논설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그는 「국문이 나라 문명할 근본」(1898.6.17)이라는 논설을 통하여 당시의 국문천시의 풍조를 매섭게 비판하면서 국문이 한국을 문명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국문교육」(1903.2.3)을 통하여는 모든 교과서를 국문으로 편찬해야 하며 특히 국어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시경이 국어 문법을 저술하였음도 아울러 기록하였다.¹⁷⁾ 주시경의 문법은 그의 이력서에 기대면 1898년 12월 31일에 개성(概成)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이승만의 증언은 그 기록의 신빙성을 더욱 짙게 한다.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은 뒤에도 영향을 미쳐 『협성회회보』(1898.1), 『매

15) 뒤의 두 편의 글은 『주시경학보』 4(1989), 5(1990)에 공개되어 있으며 김민수(편), 『주시경전서』 1(1991)에도 실려 있다.

16) 관련 정보는 김인선(1999)를 보라.

17) 이 문제는 이미 김인선(1999)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일신문』(1898.4), 『京城新聞』(1898.3.)/『대한황성신문』(1898.4.), 『제국신문』(1898.8)이 모두 한글전용으로 편집되었다. 그러나 『대한황성신문』이 『皇城新聞』으로 개제되면서는 국한문혼용으로 바꾸었다. 그 이후의 대부분의 신문은 국한문혼용의 방향을 취하였다. 이는 당시의 어문정책이 국한문혼용의 기치를 내걸고 있었고 신문독자의 대부분이 국한문체를 선호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¹⁸⁾ 그러나 드물기는 하였지만 신문에 따라서 국문판을 내는 일도 없지 않았다. 이는 어디까지나 독자층과 관련되는 문제로 보인다. 잡지가 국한문혼용체를 지향하고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이 국문체로 방향을 정한 것도 모두 독자층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개화기의 교과서를 보아도 남성 상대의 교과서는 국한문을 혼용한다든지 혼용을 해도 한자어 옆에 한글로 음을 다는 체제를 보여 주는데 여성상대의 교과서는 한글을 노출시키고 한자는 옆에 붙였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장지연이 편집한 『녀즉독본』(1908)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자는 한문 소양이 남자에 미치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신문 가운데서도 『신학월보』와 같은 기독교 계통의 신문은 한글전용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독교는 성경번역에부터 시작하여 신문 종류 등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한글전용의 기치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한글만으로 문자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흐름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앞서 든 박태서는 분별 없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엄벌해야 하며 국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외국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어유지의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박태서의 견해는 국어교육이 몸에 배기도 전에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국정부나 자녀들의 조기 외국유학에 들떠 있는 일부 계층에게 경종을 울려 주기도 한다. 『경향신문』(1907.5.10~17)에는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 국문의 요긴함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선교사들의 사전편찬을 부각시켰다. 사실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제대로 된 한국어문법과 사전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서 검토한 바 있다. 이종일의 「論國文」(1908.6)에서도 한문은 중국 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하면서

18) 이 문제는 이기문(1984)에서 상세히 다루어졌다.

국문의 진흥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승교의 「國漢文論」(1908.6)에서는 국문을 숭상하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요, 한문을 숭상하면 남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에서는 국문으로 전 과정을 영위하고 다음에 한문을 가르치라고 하였다. 신채호도 「文法을 宜統一」(1908.12)에서 난무하는 당시의 여러 가지 문체를 비판하고 아무리 한문을 동아시아에서 폐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문교육이 한문교육에 선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황성신문은 「국문발달을 주의함」(1910.4.29)에서 국문사용이 줄어들음을 한탄하면서 보통교육을 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보경(이광수)은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1908.5.24)에서 한문전용, 국한문혼용, 국문전용의 세 주장을 놓고 국문전용으로 나아가되 한문도 외국어의 하나로 보고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개화기의 어문정책 가운데서 가장 큰 아픔을 겪은 것은 한자 폐지, 한글 전용, 국한문혼용을 앞에 놓고 그 장단점을 가려내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의 갈등에 뒤지지 않은 아픔을 겪고 있었다. 『독립신문』은 「잡보」(1896.6.4)를 통하여 “한문을 버리고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다”는 학부대신 신기선이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신고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기도 하였다.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였음을 증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한국이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몇몇 특수한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한문혼용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본 바 있는데 이는 고종의 칙령과 당시의 여론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 『황성신문』은 「사설」(1898.9.5)을 통하여 황제의 성칙(聖勅)을 준수하고 공람(供覽)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국한문혼용이 옳다는 주장을 펴면서 신문을 국한문혼용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 또 「國漢文論」(1898.9.28)이라는 논설에서도 한문사용의 전통이 오래이니 만큼 한자를 일시에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능화는 「國文一定法意見書」(1906.7)에서 한국과 일본은 국한문혼용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한자 옆에 한글을 붙이는 이른바 혼독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유길준이 일찍부터 가져오던 생각이었다. 강전의 「國文便利及漢文弊害의 說」(1907.1)에서는 모든 공문

서와 각급학교 교과서는 물론, 심지어는 소설도 국한문으로 적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사실 초기 신소설 가운데는 국한문혼용을 하는 작품이 있었다.¹⁹⁾ 한홍교의 國文과 漢文의 關係(1907.3)에서는 국문의 우수성을 선양하면서 일본의 가나문자의 예를 들어 국문과 한문을 섞어쓸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테면 ‘孝悌忠信 仁義禮智’를 음으로만 가르쳐서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광수는 「今日我韓用文」(1910.7)에서 한글전용이 만년대제이나 국한문을 병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광수는 전일의 국문전용론을 많이 후퇴시켰다. 요즘 국한문혼용론자와 한글전용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행태가 이미 개화기에 싹이 뿌려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19세기 말에 한문을 공용어의 자리에서 쫓아 낸 대한제국의 어문정책을 비판하는 일이 있었음을 본 바 있는데, 1900년대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개혁이 일어날 때에는 항상 신구의 갈등이 생기는 법이다. 여규형은 「論漢文國文」(1908.2.25)에서 한문을 폐지하고 국문을 사용하는 당시의 어문정책을 비판하고 특히 한문을 버리는 것은 공자의 道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국문사용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여규형은 한문은 400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우리의 문자이고 언문은 어리석은 남녀 중에 한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려 한 것이지 한문을 폐하고 언문을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문폐지론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마치 세종 때 최만리가 한글창제를 반대하여 올린 상소문의 내용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다. 정 교도 비슷한 취지로 한문폐지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한문을 쓰는 것이 한인의 종이 아니라는 점을 서양의 예를 들어 옹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기는 「一斧劈破」(1908.6)에서 여규형의 漢文不可廢論은 국문의 역신이 되고 한문의 충노가 된다고 하면서 국문으로 독립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응수하였다.

개화기의 어문정책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당시 일본의 <漢子統一會> 회장의 글이 번역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다. 『西友』13/4(1907.12/1908.1)에 역재된 글에 대한 편집자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19) 이기문(1984)에 이런 점이 지적되어 있다.

일본에 한자통일회가 있으니 그 회장 가네코(金子堅太郎)씨가 그 의견을 저술하였는데 이를 왼쪽에 역재하여 모든 동포들에게 참고하게 하노라.

내용인즉 동아시아에서는 한자가 역사적으로 오래 동안 공용문자의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고 말하고 로마자화의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가네코는 일본, 한국, 중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어 상용(商用), 학술, 외교에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문자는 중국과 한국을 결합할 수 있는 좋은 연쇄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사람들의 사상을 교환하고 또 무역을 발달하게 함에 들도 없는 이익이 있으니 이 이익은 유럽과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인민이 갖지 못하는 바이니

사실 한자는 동아시아 문명권의 오랜 공동문어로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²⁰⁾ 이를 잘 활용하면 동양 세 나라의 의사소통에도 유리할 뿐만 서양에 대하여 동양의 문화적 우위성을 선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도 동양삼국의 상용한자통일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팽배하여 그 사이 왕래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²¹⁾

4. 마무리

이상과 같이 필자는 한글의 공용화가 계기가 되어 팽팽하게 맞섰던 개화기 당시의 한글전용론과 국한문혼용론을 검토하여 보았다. 초기의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이 국한문혼용의 큰 흐름에 밀리는 하였어도 기독교 등의 일부 종교의 경전과 소설 등의 문학작품에서는 우위를 견지하였고 주시경과 같은 사람은 자연스런 국문체의 문장을 창도하여 한글전용의 바탕을 튼튼히

20) 조동일(1999)에서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각 문명권의 공동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의 상호보조적 기능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21) 남광우(1996)에서 동양 세 나라의 한자표준화에 관련된 문제를 광범하게 논의하고 있다.

뒀었다. 한문 대신 국문을 공용화하는 데 대한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았으나 국문에 공용성을 부여하는 대세에 항거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달라져 있었다. 국한문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국문교육을 우선하고 한자·한문은 뒤로 돌리는 태도를 취하였다. 전면적인 한자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자가 동아시아의 공용문어로서 오래 동안 사용되어 왔고 동양삼국이 접촉하는 마당에서도 한자만큼 더 좋은 소통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붙였다.

개화기에 틀이 잡힌 국한문혼용론은 일제강점기에도 꾸준히 그 기반이 확대되어 신문이나 잡지 등이 국한문혼용을 지향하였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시경과 그의 후계들은 한글전용의 기틀을 그대로 밀고 나갔으나 시대가 내려올수록 국한문혼용의 흐름을 넘어서 수 없었다. 주시경의 한글전용론은 자기의 후학들에 의하여 꾸준히 다듬어지다가 우선 해방 후의 각급학교 교과서에서 제 자리를 잡았다. 이점은 북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남한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글전용의 기운이 전 사회에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은 남한보다 15년 앞선 1954년부터 전면적인 한글전용을 실천할 수 있었다.

개화기의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론의 갈등은 한글이 전 사회의 공용문자가 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사람이 한반도에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한글과 한자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힐 때에는 언제든지 불을 뿜을 수 있는 활화산과 같은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한글만 쓰고 한자를 버리면 한국고유의 어휘가 풍성해져 한국어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통일의 바탕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전통문화와의 단절을 불러일으켜 자칫하면 동양삼국의 문화적 고아가 될 수도 있다. 국한문혼용론을 지향하면 한자·한문교육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전통문화와의 연계가 쉬워지고 동양삼국과의 교통이 원활해지는 반면에 통일의 바탕을 약화시키고 한국 고유의 어휘와 표현의 발전과 신장에 걸림돌이 된다.

앞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어문정책의 기초는 일단은 한글을 주체적인 자리에 놓되 한자를 비롯한 다른 외래문자는 종속적인 자리에 놓는 지금까지의 어문정책의 기초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외국문자는 괄호 속에 넣는다는 뜻이다. 단 한자는 초등학교 높은 학년에서 중

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자수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영어는 적어도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영어의 중요성이 아무리 높아졌다고 해도 모국어의 자유로운 구사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개화기의 한국어문운동에 대한 검토는 현재의 한국어문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점을 끝으로 환기하고자 한다.

개화기 한국어문운동 일차자료*

* 다음 자료는 대부분 하동호(편), 『역대한국문법대계』(3부 3책), 탑출판사, 1985에 실려 있다.

- 「논설」, 1896.4.7, 『독립신문』 데일호.
- 「잡보」, 1896.6.4, 『독립신문』 26호.
- 「국문론」, 지석영, 1896.12.30,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호.
- 「국문문정정리理」, 리봉운, 1897.1.1.
- 「국문정리」, 리규대, 1997.1.
- 「국문론」, 유상호, 1897.4.22/24, 『독립신문』 47/48호.
- 「조선국문」, 윤치호, 1897.5.26, 『조선크리스토탄회보』 1권 17호, 4면.
- 「잡보기사와 그 비판」, 1897.5.29, 윤치호, 『독립신문』 2권 2호.
- 「漢文字와 國文字의 損益如何」, 1897.6.30/7.15, 申海永, 『大朝鮮獨立協會會報』 15/16호.
- 「론설」, 1897.8.5, 『독립신문』 92호.
- 「국문이 나라 나라 문명할 근본」, 이승만(김인선1999 추정), 1898.6.17, 『매일신문』.
- 「社說」, 1898.9.5, 『皇城新聞』 創刊辭.
- 「국문론」, 유상호, 1897.9.25/28, 『독립신문』 134/135호.
- 「사설(공사문침을 국한문으로 혼용하라신 칙교)」, 1898.9.5, 『황성신문』 창간호.
- 「國文漢文論」, 1898.9.28, 『皇城新聞』 1권 20호 論說.
- 「國文源流」, 1899.5.2/3, 『皇城新聞』 2권 96/97호 別報.
- 「타국 글 아니다」, 1899.5.20, 『독립신문』.
- 「國文交用으로 分명한 文章을」, 1899.7.18, 『황성신문』.

- 「두 가지 힘」, 1899.9.5, 『독립신문』 4권 202호.
- 「론설」, 1900.1.10, 『제국신문』 3권 5호, 1~2면.
- 「론설」, 1900.1.17, 『제국신문』 3권 11호, 1~2면.
- 「말」(론설), 1901.9, 『신학월보』 1권 10호.
- 리승만, 「상동청년회에서 학교를 설립함」, 1904.10.17, 『신학월보』.
- 「國文一定法意見書」李能和, 1906.6.1/2, 『皇城新聞』 2615/6호.
- _____, 1906.7.31, 『大韓自強會月報』 6호.
- 「국어와 국문의 필요」, 유시경, 1907.1.1, 『西友』 2호.
- 「國文便利及漢文弊害의 說」, 姜荃, 1907.1.24, 『太極學報』 6/7호.
- 「國語維持論」, 朴太緒, 1907.2.5, 『夜雷』 1호.
- 「國文과 漢文의 關係」, 韓興教, 1907.3.3, 『大韓留學生會會報』 1호.
- 「必尙自國文言」, 周時經, 1907.4.1~6, 『皇城新聞』 2442~2447호.
- 「국문론」, 미심즈, 1907.5.10~17, 『京鄉新聞』 30/31호.
- 「社說」, 국문신보 발간, 1907.5.23, 『大韓每日申報』 1호.
- 「教授와 教科에 對하야」, 張膺震, 1907.9.24/10.24, 『太極學報』 13/14호.
- 「학문」 박일삼, 1907.10.1, 『自新報』 1호.
- ① 글과 말이라(데一部 데一공과)
 - ② 언문의 자모 二十八자라(데一部 데二공과)
 - ③ 언문의 다섯 가지 소리의 초성이라(데一部 데三공과)
 - ④ 통용하던 언히의 본문이외다(데一部 데四공과)
- 「사립국문학교 취지서」, 『대한매일신보』 1권 128-9호, 1907.10.31~11.2, 2~3면.
- 「漢子統一會 開設에 關한 議見」, 1907.12.1, 1908.1.1, 『西友』 13/14호.
- 「論漢文國文」, 呂圭亨, 1908.2.25, 『大東學報月報』 1호.
- 「국문연구에 대한 관견」, 1908.3.1, 『대한매일신보』 6권 744호.
-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 李寶鏡, 1908.5.24, 『太極學報』 21호.
- 「漢文과 國文의 辨別」, 鄭喬, 1908.5.25, 『大東學報月報』 4호.
- 「論國文」, 李鍾一, 1908.5.25, 『大韓協會會報』 2호.
- 「國漢文論」, 李承喬, 1908.6.1, 『西北學會月報』 1호.
- 「小學校育에 對하는 意見」, 俞吉濬, 1908.6.10, 『皇城新聞』 2799호.
- 「一斧劈破」, 李沂, 1908.6.25/7.25/8.25, 『湖南學報』 1/2/3호.
- 「文法을 宜統一」附:小別漢文, 窺豹子 申采浩, 1908.12.25, 『畿湖興學報』 5호.
- 「국문발달을 주의함」, 1910.4.29, 『황성신문』 3356호.
- 「今日我韓用文에 對하야」, 李光洙, 1910.7.24/26/27, 『皇城新聞』 3430~3432호.

참고문헌

- 고영근(1979가), 「19세기 전반기의 서양인의 국어연구자료」, 『관악어문연구』 3 (백사전광용박사송수기념논총).
- _____ (1979나), 「로우니(L. de Rosny)의 국어연구」, 『여천서병국박사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 _____ (1983), 「개화기의 국어연구단체와 국문보급활동」, 『한국학보』 30.
- _____ (1987), 「주시경연구의 어제와 오늘」, 『주시경학보』 1.
- _____ (1994),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도서출판 길벗.
- _____ (1995가), 「주시경 <국어문법>의 형성에 얽힌 문제」, 『대동문화연구』 30
- _____ (1995나),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 _____ (1998),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 _____ (1999), 「한국의 전통적 언어철학과 그 현대적 변모」, 『이승환 교수 정년 퇴임기념논문집』, 한국문화사.
- 김민수(1960), 『국어문법론연구』, 통문관.
- _____ (1976/1986), 『주시경연구』(중보판), 탑출판사.
- _____ (1987) 『국어학사의 기본 이해』, 집문당.
- _____ 편(1991), 『주시경전서』(모두 6권), 탑출판사.
- 김민수·하동호·고영근(1985), 『역대한국문법대계』, 탑출판사.
- 김인선(1991) 「갑오경장 전후 개화파의 한글 사용—독립신문에서의 한글전용 배경」, 『주시경학보』 8, 탑출판사.
- _____ (1994), 「갑오경장 전후의 국문 한문 사용 논쟁—그 논의를 시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4권 4호.
- _____ (1999) 「개화기 이승만의 한글 운동 연구」, 연세대 국학 협동과정 박사논문.
- 남광우(1996), 「東北亞아 시대와 漢字·漢字教育」,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신용하(1976),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 _____ 편(1984), 『한국근대사회사상』, 지식산업사.
- 신창순(1994), 「한글전용표기와 기독교」, 『한국어문』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원고본), 「國文研究所의 <國文議定案>과 周時經」,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유홍렬(1962), 『高宗治下西學受難의 研究』, 을유문화사.
- 이기문(1977), 「19세기의 국문론에 대하여」, 『어문논집』 19·20(합집), 고려대 국문학과.
- _____ (1984), 「개화기의 국문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 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_____ (1989), 「<독립신문>과 한글 문화」, 『주시경학보』 4, 탐출판사.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 _____ 편(1976), 『주시경전집』 상·하, 아세아문화사.
- 이용호(1975), 『개화기의 한글 운동사』, 성청사.
- 이병근(1978), 「애국계몽주의 시대의 국어관」, 『한국학보』 12.
- 이흥식(2000), 「개화기의 국문 관련 논설에 대한 고찰」, 『덕성어문학』 10, 덕성여대 국문과.
- 조동일(1999), 『공동어문학과 민족어문학』, 지식산업사.
- King, Ross(1996), “Western Missionaries and the Origins of Language Modernation in Korea”, 제9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